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④ 강남대 이찬수 교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이찬수 교수의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 5번째 강좌가 4월 18일 자력과 타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 교수는 "불교는 기독교의 타력적 신앙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거나, 기독교 신에 대한 의도적 반발로 스스로를 자력적 종교라고 가부놓는 경향이 있다"며 "근원적으로 주어진다 출발한다는 넓은 의미에 타력과 자력은 이분법적이고 대립되는 언어가 아닐뿐더러 무아를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스스로를 자력이라는 것은 모순이다"고 설명했다. 강의는 기독교와 불교를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오해해 왔던 사실들에 대한 토론과 질의로 열기를 더했다. 수강생들은 불교의 무신론과 불상 우상론, 신앙·믿음의 대상, 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범재신론 등 다양한 질문을 했다. 이찬수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이웃종교에 최선으로 적용해 본다면 80%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웃종교를 이해하는 자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강의는 서울 서교동 서교빌딩 대안연구공동체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www.paideia21.org (02)777-0616 정리=이상연 기자



# 자력과 타력은 하나... 무아적 자유와 사랑의 삶 추구

### #정토신앙과 타력 너머의 세계

불교는 자력, 기독교는 타력으로 양 종교 전통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교를 단순하게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력 종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는 이분법적이지 않습니다. 종교는 근원적으로 주어진다 출발합니다. '자력' '타력' 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는 오히려 모두 타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에도 타력 신앙인 정토왕생(淨土往生) 신앙이 있습니다. 정토신앙은 타력신앙으로 대승보살의 신앙에 기초합니다. 인도에서 시작해 중국, 한국에서 대중적 신앙으로 발전하다가 일본에서 신앙 사상면에서 확실히 자리 잡게 됩니다. 정토종 소의경전 '정토 삼부경' 중 '무량수경'에 의하면 먼 옛날 한 국왕이 출가해 법장(Dharmakara)이란 이름의 비구승이 됩니다. 그는 과거불의 하나인 세사재왕불 앞에서 중생 구제를 위한 48개의 서원을 세운 후 이 원을 이루기 위해 수행한 결과 아미타불이 됩니다. 보살이었을 때의 원이 수행을 통해 다 성취된 결과 그는 서방정토에서 중생을 교화하는 정토의 주재불이 됩니다.

아미타불은 Amitāyus Buddha 무량수불(無量壽佛), Amitābha Buddha 무량광불(無量光佛)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Amitāyus에서 Amita는 무량, 무한의 뜻이고 yus가 생명, 목숨의 뜻입니다. 또 Amitābha에서 bha는 빛을 뜻합니다.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세계를 정토(淨土)라고 합니다.

정토왕생은 해탈을 위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중·일에서는 정토 자체를 해탈의 세계로 간주하게 됩니다.

정토 신앙의 사상적 문제의 핵심은 어떻

게 중생이 정토에 왕생해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범장보살의 48원의 요지는 아미타불이 있는 극락세계로 중생을 이끌겠다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극락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 자신도 열반에 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염불(念佛)이 핵심입니다. 범장 비구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3번만 부르면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라"는 서원을 세워 이었습니다.

성경에 "누구든 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한복음의 구조와 상통합니다. 불렀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르면 태어날 수 있도록 진리가 이미 갖추어진 것입니다. 본래적인 서원의 힘이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이 정토에 태어나게 합니다.

정토종에서는 자신의 해탈을 위해 오직 아미타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 타력 신앙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선한 사람도 왕생하는데 하물며 악한 사람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선한 사람이 왕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사람은 왕생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죠. "악한 사람도 왕생하는데 하물며 선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선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한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지만 아미타불의 자비는 훨씬 커서 선한 사람도 정토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성경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게 됐습니다"라는 말을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의인과 선인,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에

게 더 많은 은총이 넘친다고 하지만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 #일본에서 번성한 정토종

염불은 부처님을 생각하고 명상하는 행위였으나, 중국의 정토신앙에서는 선도(善導·613-681)대사 이후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입으로 일컬으며 신심을 표하는 구칭(口稱) 염불로 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평안조(平安朝)말 사회적 혼란기에 말법사상이 풍미하면서 전통적인 수행으로는 구원받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가 퍼집니다. 정토 신앙 주장자들은 계·정·혜 삼학을 닦는 전통적인 수행의 길을 어려운 길(難行道)로 간주하고, 오히려

불교적 기초를 놓아준 것입니다.

이처럼 신란의 극단적 정토신앙은 신학자 칼바르트(Karl Barth, 1886-1968)가 "정토종에서 신앙의 대상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미타불이라는 점만 제외하면 거의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불교에서 만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방편에 불과합니다. 염불은 신심의 자연스러운 발로일 뿐 결코 그것 자체가 나의 공로나 왕생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 나라는 것이 부처님의 법성법신, 부처님의 본래적인 모습에 기반해 방편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합니다. 불교에서는 많은 보살에게 기도를 합니다. 기능에 따라 다른 이름을 붙여서 기

개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구분이 사라진 것이 선불교의 핵심입니다. 선 수행은 '나'라는 것을 잊는 깨달음의 체험인데, 이것이 '나'에 의해 성취된다는 생각은 자아로서 무아를 얻으려는 것이기에 모순입니다. 공에 기반한 색의 논리는 일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자타불이 통합됩니다. 타력성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자타불이 사유체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선불교, 공을 강조하던 대승불교 전통과 정토, 아미타불의 본원, 가피력에 자타불이 세계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력종교 선(禪)과 극단적 타력신앙인 신란의 정토사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아의 세계가 곧 구원입니다. 무념, 무심, 무아를 말하는 선이나 아미타불의 은총과 순수 타력에 의한 구원을 말하는 정토 신앙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은총입니다. 은총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그에게 자신을 완전히 맡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무아적 자유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깨달음이란 결국은 주어지는 것이지 나의 성취는 아닙니다.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선물이고 '은총'입니다. '내가 성취했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 존재와 생명의 근거가 자기 자신에 있지 않고 자기를 초월하는 어떤 무한한 실재에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공이든 불성인든 자연의 법칙과 질서이든, 초월하는 절대적인 삶의 기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도 예수도

자기를 믿지 않았습니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력' 종교이며 '무신론적' 종교라고 속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가 아무리 위대하다 해도 없는 진리를 만들어 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법, 즉 진리 자체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자들도 우주만물의 질서와 존재의 신비만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기독교의 은총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은총의 질서에 속합니다. 무엇이든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매우 겸손해 질 수밖에 없으며 '자력' 종교라는 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궁극적 실재

기독교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실재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언어 속에 담기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철학자들은 궁극적 실재를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 중립적으로 '궁극적 실재'라고 말합니다.

GOD, 알라, 하나님, 하느님, 천주, 열반, 불성, 신, 브라마, 도, 천이라는 이름은 궁극적 실재의 세계에 대한 상대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GOD'이라고 하지만 'GOD'이라는 언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어가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약사여래부처님이라고 해도 진리적 기능은 같습니다. 부르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종교인의 목표는 언어를 넘어선 세계가 궁극적인 세계라는 것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언어에 갇히지 않는 세계, 마치 공(空)과 같은 세계입니다.

## '자력'·'타력'... 이분법사고 뛰어넘어야 깨달음은 이미 주어진 곳에서 이뤄진다

지 염불 수행을 통해 정토에 왕생하는 길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쉬운 길(易行道)로 주장하게 됩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진다, 본래 이루어진 사실에서 구원된다는 사유가 커지면서 정토는 발전됩니다.

정토종의 개창자인 일본 호엔(法然·1133-1212)은 염불 수행 말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을 역설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호엔의 제자인 신란(善鸞·1173-1262)은 스승의 사상을 더욱 발전시킵니다. 타력적 신앙의

도를 하지만 보살들은 결국 부처입니다. 보살은 방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열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 #자력과 타력

대승불교의 핵심적 세계관이라는 차원에서 자력과 타력은 설명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他)는 자(自)의 대립어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힘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 본원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불교는 중생이 부처다(衆生即佛), 심즉불(心即佛)로 표현됩니다. 중생과 부처, 나와 너라는 이분법이 사라지게 되고,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 네츰컬 삼베 멩석 카페트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한국

(중) (대)

- 삼베 수제 멩석 (카페트)
  - ◇ 크기: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 용도: 법당, 대청마루, 거실
  - ◇ 가격: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8%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 (공용):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